

미국의 농업 현황과 농업 정책 *

이 수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1.1. 국가 개요

미국은 북아메리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워싱턴 D.C.)로 구성된 연방제 공화국이며, 국토면적은 983만 km^2 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면적이 크다. 인구는 현재 약 3억 2,000만 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로써 백인 비율이 미국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흑인이 12.6%, 아시아인이 4.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국내 총생산(GDP)이 2016년을 기준으로 16조 9,000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이며, 1인당 GDP도 5만 2,195 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미국의 농지면적은 2014년에 408만 km^2 로 나타났으며, 1960년에는 미국의 농지면적이 국토 전체면적에서 48.9%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44.6%로 4.3%p 감소하였다. 미국의 농업 총생산(GDP)은 2015년에 1,807억 달러로 미국 총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의 농업 GDP는 과거에 비해 점

* (suhwan8352@krei.re.kr).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의 농업 GDP와 비교하면 28.7% 증가하였다. 미국의 농가당 GDP는 2015년에 8만 538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1인당 GDP에 비해 55.7%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농촌 인구는 201~202만 명으로 추산되어 미국 전체 인구의 1% 미만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교역은 농산물 수출이 미국 전체 수출에서 2.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은 전체수입에서 0.9~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미국의 주요 경제 및 농업 지표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토면적(천 km^2)	9,632	9,632	9,832	9,832	9,832	9,832	9,832	9,832	9,832
농지면적(천 km^2)	4,144	4,118	4,084	4,047	4,087	4,058	4,082	-	-
농지면적 비중(%)	45.2	44.9	44.6	44.2	44.7	44.4	44.6	-	-
총 GDP(억 달러)	127,131	144,081	149,644	152,040	155,422	158,029	161,775	165,974	168,656
1인당 GDP(달러)	45,056	48,756	48,374	48,783	49,498	49,977	50,783	51,722	52,195
농업 GDP(억 달러)	1,364	1,614	1,704	1,611	1,480	1,768	1,755	1,807	-
농가당 GDP(달러)	44,136	58,104	67,898	65,633	61,634	75,246	76,457	80,538	-
총 인구(만 명)	22,499	23,832	25,221	25,489	25,752	26,013	26,273	26,536	26,801
농촌 인구(만 명)	200	201	201	201	201	201	201	202	202
농산물 수출비중(%)	2.3	2.5	2.6	2.8	2.5	2.4	2.3	2.3	2.3
농산물 수입비중(%)	1.4	1.3	1.0	1.0	0.9	0.9	0.9	0.9	1.0

주: 1) GDP 관련 항목은 2010년 기준 불변가격을 나타냄.

2) 농산물 수출입비중(%)은 미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농산물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The World Bank DataBank, FAO STAT.

1.2. 농업 개요

미국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농업 면적은 미국 국토 면적에서 44.6%를 차지하여 비교적 넓고, 특히 옥수수, 대두 등의 곡물 생산량은 세계에서 상위 국가에 속하고 있어 농업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

미국의 주요 농업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2004년~2006년 동안의 농산물 평균 생산량을 100(기준연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2007년 이후로 농업 생산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과 2012년에 미국의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다소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곡물과 과일·채소류는 기상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으로 가뭄 피해가 있었던 2011년과 2012년에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식품 이외 농산물 생산지수는 기준연도(2004~2006년)보다 66.3~84.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2. 미국의 주요 농업 생산지표(Index)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 생산지수	102.2	102.7	103.7	104.0	101.7	100.3	103.8	106.3
곡물 생산지수	111.2	107.6	110.6	105.5	100.1	92.1	110.5	112.1
과일·채소 생산지수	101.0	98.3	101.7	100.8	96.2	94.6	101.3	106.0
축산 생산지수	102.9	104.5	105.7	105.1	103.2	101.4	105.7	107.7
식품 생산지수	101.2	103.9	100.9	101.3	101.3	100.5	100.7	100.1
식품 이외 농산물 생산지수	84.3	58.7	56.1	77.6	66.3	73.3	56.3	70.4

주: 각 연도별 생산 지수는 2004~2006년 평균을 100으로 한 값을 나타냄.
자료: FAO STAT.

미국의 1인당 농업 생산지수는 2007년부터 기준연도에 비해 증가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4.6을 기록하였다. 부류별 생산지수도 곡물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면 축산 및 과일·채소 보다 생산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과일·채소와 축산의 생산지수는 2014년에 기준연도보다 각각 14.3%와 16.2% 증가하였고, 식품의 생산지수는 7.9% 상승하였다. 하지만 식품 이외의 농산물 생산지수는 기준연도 대비 60~8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3. 미국의 주요 농업 1인당 생산지표(Index)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 생산지수	104.1	105.6	107.6	108.9	107.3	106.6	111.1	114.6
곡물 생산지수	113.3	110.7	114.8	110.4	105.6	98.0	118.4	121.0
과일·채소 생산지수	102.9	101.1	105.6	105.5	101.5	100.5	108.5	114.3
축산 생산지수	104.8	107.4	109.6	110.0	108.8	107.8	113.2	116.2
식품 생산지수	103.1	106.8	104.6	106.0	106.8	106.8	107.9	107.9
식품 이외 농산물 생산지수	85.9	60.3	58.2	81.2	70.0	77.9	60.3	75.9

자료: FAO STAT.

2. 미국의 농산물 생산 및 교역

2.1. 농산물 생산

미국의 농산물 생산은 주로 옥수수, 대두 등 곡물과 쇠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 가운데에는 옥수수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약 2억 5,000만 톤이 생산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3억 5,000만 톤 이상이 생산되어 연평균 3.2%의 생산 증가율을 타나내고 있다.

그 외에도 곡물 가운데 밀(5,612만 톤), 식용대두(4,049만 톤), 수수(1,220만 톤), 콩기름(999만 톤), 쌀(712만 톤), 보리(435만 톤) 등과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지방종자)

표 4. 미국의 주요 농축산물 생산량 동향

(단위: 천 톤)

	2000/01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옥수수	241,377	267,503	312,789	273,192	351,272	361,091	345,506	384,778
대두(지방종자)	78,672	87,001	84,291	82,791	91,389	106,878	106,857	116,920
우유	74,993	82,455	89,020	91,010	91,277	93,485	94,619	96,343
밀	53,001	57,243	58,868	54,244	61,298	58,105	55,147	56,117
대두(식용)	36,552	39,037	37,217	36,174	36,909	40,880	40,525	40,493
닭고기	14,033	15,930	16,694	16,621	16,976	17,306	17,971	18,261
수수	13,057	7,032	5,410	6,293	9,966	10,988	15,158	12,199
쇠고기	11,983	11,980	11,978	11,845	11,751	11,075	10,817	11,507
돼지고기	8,691	9,559	10,331	10,554	10,525	10,368	11,121	11,320
콩기름	8,572	9,294	8,954	8,990	9,131	9,706	9,956	9,988
설탕	7,956	6,713	7,104	7,700	8,148	7,676	7,853	8,155
쌀	6,714	6,267	5,866	6,348	6,117	7,106	6,133	7,117
치즈	3,747	4,320	4,806	4,938	5,036	5,222	5,367	5,514
목화씨(지방종자)	6,761	6,666	4,872	5,140	3,813	4,649	3,668	4,871
사과	4,177	4,414	4,231	4,049	4,690	5,067	4,502	4,649
오렌지	11,290	6,917	8,166	7,501	6,140	5,763	5,523	4,599
보리	5,407	3,923	3,370	4,768	4,719	3,953	4,750	4,353
땅콩(지방종자)	1,940	1,571	1,660	3,064	1,893	2,354	2,722	2,532
유채씨(지방종자)	908	633	694	1,087	1,004	1,141	1,306	1,409
해바라기씨(지방종자)	1,551	972	925	1,241	917	1,007	1,326	1,203

주: 지방종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를 총칭함.

자료: PSD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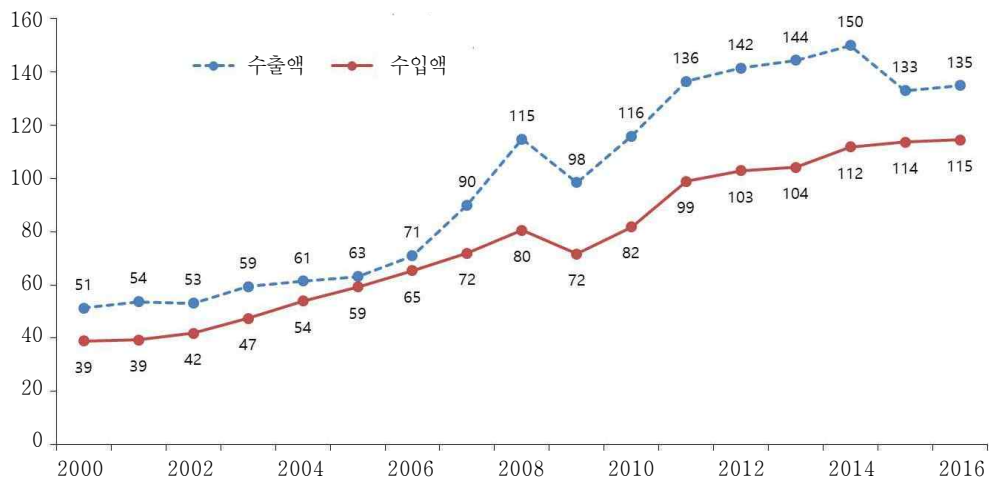
인 대두유(1,169만 톤), 목화씨(487만 톤), 땅콩(253만 톤), 유채씨(141만 톤), 해바라기 씨(120만 톤) 등이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미국의 축산물은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순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으며,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2000년대 초반에는 각각 1,400만 톤과 870만 톤 수준으로 생산되다가 그 이후에는 연평균 1.8%씩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각각 1,600만 톤과 1,000만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2015/16년 쇠고기 생산량은 1,151만 톤으로 2000년 이후 1,10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다소 정체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상위 수입품목인 오렌지와 그 외 우유, 설탕, 쌀, 사과, 치즈 등이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2.2. 농산물 교역

2016년 미국의 농산물 교역액은 2,494억 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6.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많아 농산물 교역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6.2%씩 증가하는 반면, 수입액은 연평균 7.0%씩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액 증가 폭이 수출액 증가폭보다 다소 높다. 한편, 미국 농산물 무역수지는 2010년 초반에는 300~400억 달러 수준으로 흑자를 보이다가 2015~2016년에는 200억 달러로 흑자가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1. 미국의 농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미농무부(USDA), ERS.

2.2.1. 농산물 수출입

미국산 농산물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유럽연합(EU) 등이다. 미국의 농산물 최대 수출시장은 중국으로 2016년에 총 214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였고, 이는 미국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1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15.1%), 멕시코(13.1%), 유럽연합(8.7%) 순으로 농산물 수출이 많으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72억 달러를 수출하여 미국 입장에서 여섯 번째 농산물 수출 대상국에 속한다. 한편, 미국의 對 베트남 농산물 수출액은 2010년에 13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7억 달러를 기록하여 연평균 12.6%로 농산물 상위 수출 대상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표 5>는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 동향을 나타낸다.

표 5.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 동향

(단위: 억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중(%)
전체	1,158	1,364	1,416	1,444	1,500	1,331	1,349	-
중국	176	189	259	255	242	203	214	15.8
캐나다	169	190	206	214	220	210	202	15.1
멕시코	146	184	189	181	194	177	178	13.1
유럽연합(EU)	89	97	101	119	126	121	115	8.7
일본	118	141	135	122	132	111	111	8.5
한국	66	83	71	64	83	74	72	5.3
홍콩	28	33	34	39	41	36	38	2.8
대만	32	36	32	31	35	31	32	2.4
인도네시아	22	28	25	28	29	22	27	1.9
베트남	13	16	17	22	23	22	27	1.7
필리핀	16	21	24	25	27	23	26	1.8

주: 비중은 미국의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액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농무부(USDA), ERS.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도 미국의 접경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호주, 칠레 등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주로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으로부터 각각 203억 달러, 216억 달러, 206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미국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2010년 이후 연평균 9.1%씩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로 부터 소비재(Consumer oriented good)인 화훼류, 육류, 스낵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으로 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물의 약 50% 정도가 화훼류이다. 또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화훼류, 설탕, 열대과일 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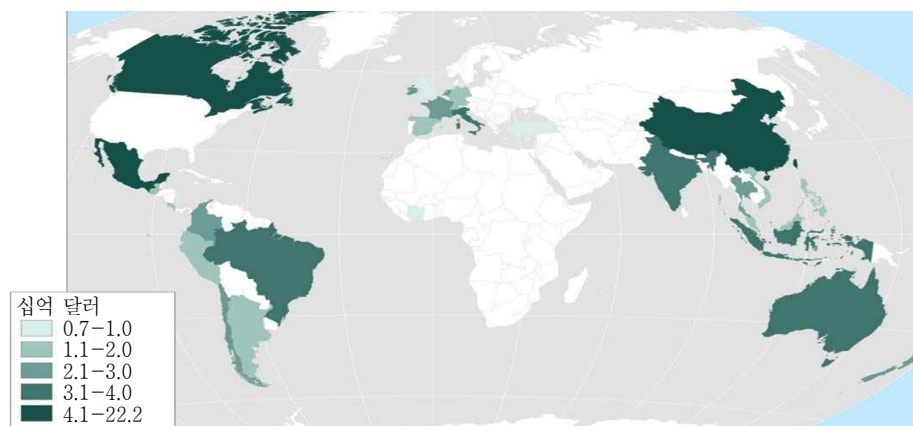
표 6.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 동향

(단위: 억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중(%)
전체	819	990	1,029	1,042	1,118	1,136	1,146	100.0
멕시코	136	158	164	177	193	210	230	18.6
캐나다	162	189	202	218	232	218	216	19.6
유럽연합(EU)	144	161	168	176	190	200	206	17.5
중국	34	40	45	44	43	44	43	3.8
브라질	29	41	34	34	39	35	34	3.2
호주	23	24	27	28	39	43	32	3.3
칠레	23	24	25	29	28	29	31	2.6
인도네시아	29	43	33	31	30	29	29	2.6
뉴질랜드	17	20	22	22	26	29	26	2.4
콜롬비아	20	25	21	22	24	24	23	2.1
태국	20	26	24	22	22	23	23	2.0

주: 비중은 미국의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액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농무부(USDA), ERS.

그림 2.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입국 동향



주: 미국의 국가별 농산물 수입액은 2013~2015년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임.
자료: 미농무부(USDA), ERS.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자국 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대두, 옥수수, 밀, 사료 등 곡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화훼류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 상위 품목에 속한다. 대두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24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그 다음은 옥수수(89억 달러), 밀(75억 달러), 사료곡물(71억 달러), 화훼류(55억 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품목은 커피(63억 달러), 와인(54억 달러), 코코아(46억 달러) 등 가공식품이 위주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 가운데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품목은 쇠고기(46억 달러), 기타 과일(21억 달러), 바나나(22억 달러), 토마토(20억 달러) 등이다.

표 7.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순위	수출 상위 품목	수출액	순위	수입 상위 품목	수입액
1	대두	224	1	커피	63
2	옥수수	89	2	와인	54
3	밀	75	3	코코아	46
4	사료곡물	71	4	맥아 음료	42
5	화훼작물	55	5	쇠고기	46
6	쇠고기	52	6	비스킷류	33
7	아몬드	43	7	기타 음료	30
8	돼지고기	45	8	기타 곡물	29
9	콩가루	49	9	휘발유	25
10	면화	48	10	화훼작물	39
11	기타 곡물	37	11	기타 과일	21
12	닭고기	34	12	바나나	22
13	음료류	18	13	토마토	20
14	쌀	20	14	베리류	17
15	휘발유	17	15	아보카도	17
16	기타 채소	16	16	의약품 마약류	17
17	기타 낙농품	18	17	설탕류	18
18	설탕제품	17	18	과자류	16
19	종자	16	19	사료곡물	17
20	식물성 기름	17	20	유채씨유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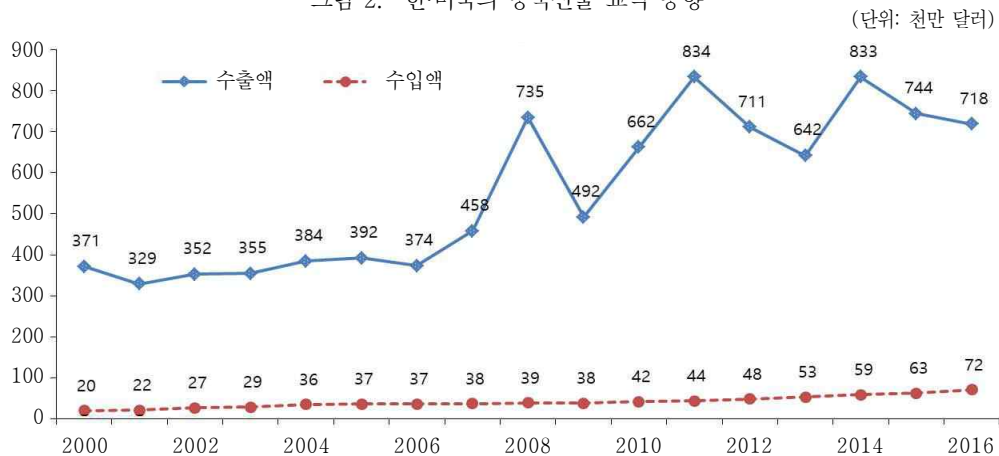
주: 수출입액은 2010~2016년까지의 미국의 수출입품목(20개)의 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미농무부(USDA), ERS.

3. 한·미 농산물 교역 연왕

우리나라와 미국의 농산물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교역하는 국가들 가운데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미국산이 우리나라 농산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은 20~25%수준이며, 수출은 8~11% 수준이다. 2016년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71억 8,000만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농산물 수입선이 전환되어 2014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미 농산물 수출액은 2016년에 7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수출관세 인하와 수출 여건 개선, 미국으로의 수출시장 개척 및 홍보 확대 등으로 연평균 10.3%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은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6년에는 미국으로 수출한 농산물 가운데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5.6%로 전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 14.2% 증가하였다.

그림 2. 한·미국의 농축산물 교역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1. 미국산 농산물 수입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농산물 상위 품목은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소 원피, 치즈 등이 있으며, 곡물에서는 옥수수, 밀, 대두, 양조박, 그리고 과일·견과류

에는 오렌지, 체리, 아몬드, 호두 등이 있다. 특히 쇠고기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전체 수입액의 11.3%를 차지하여 2010년 이후 연평균 16.1%의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곡물에서는 옥수수가 미국산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3.1%를 차지하여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외에도 밀, 대두, 양조박 등을 수입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수입 단가가 상승하여 곡물 수입선이 미국에서 수입단가가 낮은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후에도 미국산 곡물 수입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산 과일 수입은 오렌지의 경우 2014년 미국의 작황부진과 미국의 항만노조 파업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수입이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는 다시 작황이 회복되어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산 체리는 한·미 FTA 발효 직후 수입 관세율이 기존 24%에서 즉시 철폐되어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 미국산 체리 수입액은 총 1,124만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2.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미국산 주요 농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3개년 비중(%)	연평균 증감율(%)
쇠고기	42,161	65,303	52,246	57,800	76,441	80,200	103,500	11.3	16.1
옥수수	168,407	193,670	93,096	6,662	140,132	76,493	83,248	13.1	-11.1
혼합조제식료품	34,940	44,691	42,447	42,266	52,210	55,113	65,900	7.5	11.2
돼지고기	18,403	50,991	39,131	31,344	40,326	45,538	39,339	5.5	13.5
밀	37,671	50,702	76,449	42,924	43,086	36,309	29,118	4.7	-4.2
대두	35,577	32,601	31,035	37,147	37,904	28,705	29,012	4.2	-3.3
소원피	38,266	43,524	46,086	47,637	47,276	40,172	28,354	5.0	-4.9
사료용근채류	19,576	22,989	28,450	31,395	26,117	25,475	23,063	3.3	2.8
오렌지	13,736	17,837	24,096	23,484	17,475	19,150	22,557	2.6	8.6
양조박	12,681	13,137	15,017	14,449	19,607	16,025	18,471	2.4	6.5
관지	22,901	26,882	20,151	20,099	19,050	18,607	18,042	2.4	-3.9
아몬드	6,648	8,474	12,857	16,099	20,847	23,057	17,426	2.7	17.4
치즈	7,593	14,023	14,060	18,838	30,132	25,075	16,863	3.1	14.2
면	14,659	40,243	17,159	18,091	22,821	28,140	16,175	2.9	1.7
펄프	22,307	23,291	17,403	16,473	17,994	17,630	14,765	2.2	-6.6
감자	6,727	7,858	9,657	11,403	12,289	13,588	12,370	1.7	10.7
체리	3,328	4,850	8,395	9,070	12,607	12,247	11,237	1.6	22.5
쌀	7,841	12,543	4,770	14,544	2,228	13,646	8,613	1.1	1.6
호두	6,445	8,133	9,801	10,773	12,269	12,919	8,451	1.5	4.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2. 대미 농산물 수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농산물은 껌, 혼합조제식료품, 기타 음료, 라면, 비스킷 등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껌과 혼합조제식료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각각 13.1%와 10.9%를 차지하여 수출 상위 품목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껌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2.1%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혼합조제식료품도 매년 7천만 달러 수준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은 크지는 않지만 0.2%씩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에도 기타 음료, 라면, 비스킷, 기타 조제식료품 등도 미국에 수출하는 상위 품목으로 연평균 10%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위 품목 중 신선 형태로 수출하는 품목은 배가 있으며, 미국에서 거주하는 교민들 사이에서 선물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연간 배 수출액은 약 3,000만 달러 수준이다.

표 9. 對미국 주요 농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3개년 비중(%)	연평균증 감율(%)
껌	31,277	29,376	38,963	49,851	59,360	91,540	103,863	13.1	22.1
혼합조제식료품	70,444	69,095	61,573	60,889	75,000	65,218	71,435	10.9	0.2
기타음료	21,513	29,810	45,672	43,162	54,423	57,190	62,909	9.0	19.6
라면	19,786	20,528	22,125	26,187	26,098	29,620	35,575	4.7	10.3
배	25,413	23,833	26,307	24,475	29,187	26,026	29,529	4.4	2.5
비스킷	16,344	19,721	18,626	23,494	24,213	21,495	26,595	3.7	8.5
기타석제품	195	172	210	2,959	7,668	13,486	26,368	2.5	126.5
기타소오스제품	7,271	10,338	9,957	11,346	13,489	14,646	18,650	2.4	17.0
기타베이커리제품	4,726	5,702	6,445	7,942	10,985	14,973	17,574	2.2	24.5
젤라틴	14,221	11,593	17,737	22,911	20,771	18,511	15,589	2.8	1.5
곡류조제품	10,791	12,088	12,964	10,457	13,342	12,436	14,495	2.1	5.0
기타과스타	10,914	11,056	12,263	13,613	11,884	11,624	13,668	1.9	3.8
기타조제식료품	4,631	6,534	6,732	7,305	9,709	10,105	12,305	1.7	17.7
국수	10,134	11,621	12,342	11,018	11,808	12,600	12,007	1.9	2.9
빵	3,346	4,913	5,939	8,185	10,116	9,549	11,368	1.6	22.6
소주	8,967	8,574	9,002	9,554	10,210	10,227	11,013	1.6	3.5
고추장	5,078	6,497	8,113	9,169	9,176	9,935	10,385	1.5	12.7
베이커리반죽	4,175	5,730	6,939	8,392	10,533	10,466	10,314	1.6	16.3
커피조제품	4,881	6,883	7,501	7,086	8,573	8,446	9,142	1.3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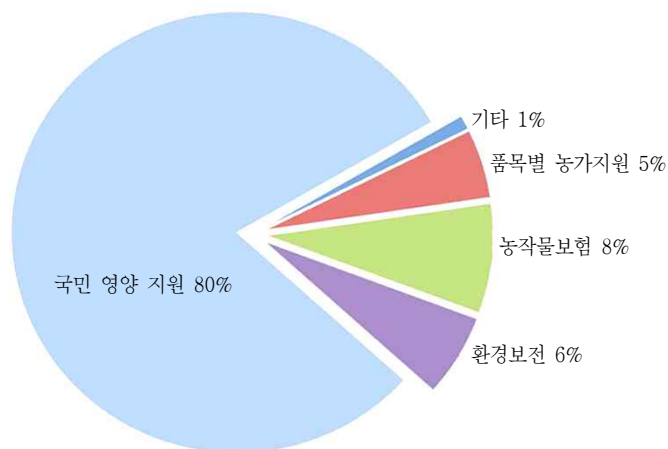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미국의 농업정책

4.1. 개요

미국의 농업정책의 근간인 농업법(Farm bill)은 193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약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농업법은 2014년 2월 7일에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2018년까지 유효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2014)은 품목별 농가지원(Commodity support), 국민영양지원(Nutrition assistance), 환경보전(Conservatio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농업 및 식량정책을 다루고 있다. 2014년에 개정된 농업법은 품목별 농가지원 부문에 농작물보험(Crop insurance)조항을 새로 신설하였고, 환경보전 부분의 예산은 소폭 축소하였으며, 국민영양지원은 일부 조항을 수정, 그 외 특수작물, 유기농업, 바이오 에너지, 농촌 개발 등의 프로그램은 예산이 확대되었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2014년에 새롭게 개정된 농업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9,564억 달러의 재정을 지출하며, 농업 전체 예산의 80%는 국민영양지원에 예산을 책정하고, 그 외 전체 예산의 8%는 농작물 보험, 6%는 환경보전, 5%는 품목별 농가지원, 1%는 임업, 에너지, 원예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으로 예산을 배정하였다.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결손보상정책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작물보험의 경우

그림 3. 미국의 농업정책관련 예산 현황(2014~2018년)



자료: 미국 농무부(USDA)

2008년 농업법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WTO와 FTA 등으로 인한 자유무역이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기후변화 등으로 농가경영의 위험성 증대와 소득변동성 증가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의 강화로 보인다.

4.2.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정책

미국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Commodity support)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여 주므로써 농가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2014년 농업법에는 크게 유통융자지원제도(Marketing loan),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수입손실보상제도(Agriculture risk coverage)로 구분하여 농산물 가격과 농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통융자지원제도는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1933년부터 시행되어온 농가소득 안정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융자단가가 최저보장 가격이 된다. 융자지원제도에 포함된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대두, 기타 유지작물 등 20개 이다.

가격손실보상제도는 지원 품목을 정부가 사전에 정해두고, 해당 품목의 유통년도의 평균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가격손실보상제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 병아리콩 등 총 14개이다.

수입손실보상제도는 농가의 단위면적당 실제 수입액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 수입액의 86%이하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지원금액은 기준 수입액의 10%미만이다. 수입손실보상제도는 가격손실보상제도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가는 가격손실보상제도와 수입손실보상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입손실보상제도는 지역단위(county level)이나 농장단위(Farm level)에서 평균 수입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으며, 농가들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4.3. 환경보전정책

미국의 환경보전정책은 농업자원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20개 이상의 광범위한 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보전정책은 농업법상 환경

보전이라는 명목 아래 토양침식 방지와 농업용수 관리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전, 대기 질 관리, 습지 복구 및 보전, 에너지 효율 증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전정책은 크게 농가지원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적 의무수준의 차원에서의 규제정책과 농가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가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환경보전 규제정책으로는 경작지보호와 습지보호제도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는 의무적으로 침식성이 높은 작물 경작지와 습지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농가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은 대상 토지의 경작 여부와 정책목적에 따라 농지은퇴지원제도, 경작농지지원제도, 긴급재해보전제도, 기술지원프로그램과 기타 환경보전제도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4.4. 국민영양지원정책

미국의 국민영양지원정책(Nutrition assistance)은 주로 저소득 빈곤층, 실업자, 노약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영양과 건강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영양보조지원 정책은 과거에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주로 저소득 빈곤층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권을 제공하였다. 현재에는 과거 푸드 스탬프 대신 영양보조지원정책(SNAP)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식품 보조의 수혜자격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가구가 대상 자격이 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현재 영양보조지원정책은 국민영양지원정책 전체 예산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긴급식품지원제도, 신선 과채류 프로그램, 고령 농민시장 영양제도, 지역식량안보, 로컬 푸드 등도 지원하고 있다.

4.5. 작물보험

농업재해보험은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이나 병해충 발생 등의 자연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써 193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농가에 지원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작물보험(Crop insurance)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농가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이 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옥수수, 밀, 콩 등 100여개 이상의 작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채소류를 제외한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작물은 농

업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적용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은 농가들의 자발적인 임의 가입방식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며, 보험료 보조 수준은 평균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50~60% 정도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농업부문에는 202만 명의 농업인이 408만 km^2 의 농지에 210만 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농가당 GDP는 약 8만 달러로 미국의 1인당 평균 GDP에 비해 1.5배나 높고, 우리나라의 농가당 GDP와 비교해 보아도 3배 이상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에 속한다. 현재 미국 농장의 약 87%는 가족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판매액은 2012년에 3,9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중 농산물 판매액이 5만 달러 미만인 농장이 미국 전체 농장의 3/4을 차지하여 비중이 높고, 이들은 미국 농산물의 약 3%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농장도 미국 전체 농장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 전체 농산물의 66%를 생산하여 대농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미국은 전체 토지면적의 40%는 농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의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미국의 주요 재배 작물로는 옥수수, 콩, 수수, 식물종자 등 곡물이며, 특히 옥수수와 콩의 재배면적은 미국 전체 농지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재배 비중이 높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소 사육 농장은 약 62만 농가로 미국 전체 농장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 주요 교역국은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멕시코이며, 그 외에도 유럽 연합(EU), 중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과도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화훼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커피, 와인, 코코아, 맥아음료 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여섯 번째로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며, 수출 규모는 연간 72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쇠고기, 옥수수, 혼합조제식료품, 돼지고기 등이 있다.

미국의 농업정책은 2014년에 농업법이 새로 개정되어 2018년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9,564억 달러의 재정이 지출된다. 미국의 주요 농업정

책은 국민영양지원, 작물보험, 환경보전, 그리고 품목별농가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연구개발, 에너지, 원예, 농촌개발 등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를 발효하여 현재 이행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한·미 FTA 이행에 따라 관세율 인하 효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그 후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미국에서의 수출관로 개척 및 홍보,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 등으로 연평균 10%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은 여전히 가공식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도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수출 전략품목을 추가 발굴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